



24시의 생활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시 티문고가 24시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서점이 지나는 매력을 한껏 즐기게끔 하자는 뜻에서다. 온라인 서점들이 박리다매에 현책 보상판매 등 갖가지 서비스를 동원하는 마당에 현장에서 직접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언제까지 독자가 제발로 찾아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일 터.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게 발달하는 기술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책의 목차 뿐 아니라 내용의 일부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8시에 문을 닫는 해묵은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야흐로 도시인의 삶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24시간 생활체제가 자리잡은 듯 하다. 이미 한 밤의 쇼펴는 정착된 지 오래다. 생필품은 물론, 의류나 악세서리를 파는 곳도 분야성을 이룬다. 유흥가 주변에 자리잡은 소위 '먹자 골목'에는 해장국집 뿐 아니라 간장게장을 파는 음식점까지 '24시간 영업'을 내걸고 있다. 보고싶어도 잠을 낼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한 심야상영 영화관을 찾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자리잡은 24시간 편의점도 이젠 친숙한 이웃이 됐다. 뿐인가. 한 밤중에 수중에 현금이 떨어졌다고 해도 걱정할 일이 못된다. 여기저기 문을 열고있는 현금자동출납기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일부 사람들에게 여흥을 즐기는 것으로만 생명을 부여받았던 자정 이후의 시간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시

간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다.

과연 24시 생활체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일까.

보통사람들은 오전 8-9시에 일터에 도착하여 오후 6-7시까지 업무를 본다. 퇴근 이후엔 업무상 필요한 관계자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이런저런 만남으로 공적 영역의 시간들은 오후 10시 언저리까지 확장되기 일쑤여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마저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야만 할 정도로 줄어들어 간다.



그러나 조물주라도 하루 24시간으로 고정된 시간을 늘이기란 불가능한 일. 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죽어있는 시간'을 삶의 현장으로 불러낸 것이 24시간 생활체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늘어난 생활시간 덕에 가정을 이끌어 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차질 없이 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자. 혹시 피로에 치진 몸을 이끌고 다시 생필품을 사러 나서야 하지는 않는지. 귀가를 서두르는 가족에게 '오는 김에' 하면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더 시키지는 않는지. '남의 집은...' 하면서 가기 싫다는 가족까지 일부러 잡아 끌어 억지춘향식 가족 나들이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가족이라는 가장 친숙한 울타리 속에 편안히 휴식을 즐길 시간을 서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쁜 현대 생활의 편이' 뒤켤엔 잠자는 시간마저도 생활을 위해 내놓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슬픈 얼굴이 숨어있음을 기억하자. PPFK